



宗訓

1. 宗祖精神의 高揚
2. 宗族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제42호 2004. 10. 1 (금)

順天金氏宗報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발행인:김종식/편집인:김봉환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부광빌딩 2층 / 전화:(02)400-2501~2502/FAX:(02)400-2505

제19회 順天金氏 大學生 夏季 教養講座 開催

• 8월5일~8일 시조 묘역 동원재, 종친 대학생 20명 참가 •

순천김씨 대학생 하계 교양 강좌가 지난 8월 5일 부터 8일 까지 전남 순천 시조 묘역 동원재에서 종친 대학생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19회째 열린 이번 대학생 교양 강좌는 3박 4일간 족보 보는 법, 사례(四禮), 역사 강좌를 비롯해 해남 삼상사(방춘서원) 참배, 한화 여수공장 견학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교양 강좌 첫날인 8월 5일 입소식에서 김종식 중앙종친회장은 우리의 대학생 교양강좌는 다문중에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후손들의 숭조에친사상을 고취시키는 귀중한 문중대사라고 밝히고 올해로 19번째에 이르는 개최 역량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다.

김회장은 또 교양강좌를 통해 2세 종친들이 조상의 위업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운 문중의 후손으로 긍지를 가지고 대대손손 역사를 전승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학생 교양강좌에서는 대구 김동소 종친(교수)

부인 박정숙여사가 꽃꽂이 강의와 함께 해남 삼상사 제단에 꽃꽂이 작품을 헌화하는 등 3박 4일 동안 대학생들의 뒷바라지를 자원해 눈길을 모았다.

특히 한화 여수 공장에서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나와 친절히 안내했으며 점심식사 대접과 함께 여수 특산품인 돌산 갯김치 30여 상자를 선들했다.

한편 이번 대학생 교양 강좌에서는 전국 각처에서 40여명의 종친이 격려차 참석했고 특히 가곡공파 연복 종친은 스스로 작사·작곡한 「순천김자손」이라는 노래를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가르쳐 2세들에게 송조사상을 복돋워줬다.



· 입소식 전경 ·

대학생 교양 강좌 참가기(記)

조상님께 바치는 글

조상님 전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의 뿌리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순천김씨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조상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42대손 김문섭이 되겠습니다.

좋았던 점과 보완해야 될 점(건의사항)

좋았던 점 : 배우는 분위기가 자유스럽고 개개인을 존중해 주는 분위기라서 더욱 여유롭고 긴장을 푼 마음 상태로 수업에 임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보완해야 될 점 : 둘째날 수업과 수업 사이에 휴식 시간이 좀 더 충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이 충분했으면 좀 더 잘 집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서(나의 조상님께 대한 다짐)

결과부터 말한다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안 분위기 치고는 전 유별히도 조상님들께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제가 어느 파 몇대 손인지도 잘 몰랐던 '저'이지만 일단 수련회에 오고나니 저 자신도 뿌리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조상님 묘소 참배도 제게는 사뭇 색다른 경험이었고 어른들의 가르침도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도 이곳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고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waymind@hanmail.ne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73-6

2면으로 계속

公 告

順天金氏中央宗親會 제15기 정기총회 개최 공고

회칙 제 십이조 일항에 의거 2004년 제 15기 정기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개별통지 생략)

2004년 10월 1일

순천김씨중앙종친회 회장 김종식

1. 일시 : 2004년 11월 11일 오후 18시
2. 장소 : 전남 승주군 주암면 창촌리 동원재(가락당 회관)
 - ▶ 연락처 : 중앙종친회
 - ▶ 전 화 : 02-400-2501-2
3. 참석범위 : 중앙종친회 전임원과 대의원
4. 의안
 - 1) 업무보고
 - 2) 제14기 수입지출 결산보고

- 3) 임원선출
- 4) 제15기 예산안 인준
- 5) 기타 사항

전국지역 종친회장께서는 종보가 도착되는데로 전 임원께 널리 연락하여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날 12일이 시조 추향제입니다. 총회일자는 추향제 전일로 결정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면에서 계속

조상님께 바치는 글

오늘날 우리 순천 김가 씨족들이 서로 모여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강좌를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뿌리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찾게 되어 영광이고 교양강좌를 통해 순천김가 조상님의 업적을 알게 되어 기쁘고 조금이라도 순천김가에 대한 작은 관심이 생기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김가의 모든 자손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해 주세요.

좋았던 점과 보완해야 될 점(건의사항)

좋았던 점 :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조상들의 업적과 나의 뿌리를 찾게 되어 좋았다. 그리고 교양 강좌를 통해 조상님들의 작은 부분이라도 알게되어 기쁘고, 어르신들의 열정적인 강좌가 좋았다.

보완해야 될 점 : 열정적인 교양강좌는 좋았으나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고 강좌에 비해 휴식시간이 적다는게 아쉽다. (짧은 휴식시간이라도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교육을 마치고 나서(나의 조상님께 대한 다짐)

이렇게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은 전라도 순천에서 교양 강좌를 들으면서 조상님들의 눈부신 업적을 알게 되어 제가 순천 김가의 자손이 된 것이 기쁩니다. 이렇게 좋은 순천김가의 자손이라는 것을 영광으로 삼고 더욱 더 순천김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여 순천김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김연성(kimyeonseong@hanmail.net)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1리 471번지



조상님께 바치는 글

조상님이 워낙 많으셔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대표적이신 시조 할아버지께 몇자 올리겠습니다. 저희 순김 가문은 사람수가 타 가문에 비해 적은 편이고 또 시대의 착오로 인해 뿌리 조상님을 제대로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어디 김씨다, 최씨다, 박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유독 우리 순김 가문은 순천 김씨라는 것만 알았지 그 연원이 어딘지 제대로 몰라 조상님들을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하고 지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의 뿌리가 되시는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가문의 명예와 번영을 위해서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았던 점과 보완해야 될 점(건의사항)

우선 좋았던 점을 들자면 이렇게 직접 시조 할아버지의 영전에 와 봐서 예배도 드리고 제 뿌리의 근원이 숨쉬는 이 곳의 공기도 맛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훌륭한 강사님들의 강연과 또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꽃꽂이 시간도 가질 수 있어 무척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 또래의 친구들과 같은 종가라는 틀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보니 형, 동생과 같은 친밀감을 쉽게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딱딱하기 쉬운 교육 내용들을 비슷한 또래끼리 공부하다 보면 좀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은 샤워실이 좀 작다는 느낌과 좀 더 효율적으로 편안한 자세에서 강의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용변의 해결과 졸음 방지 등을 해서 좀더 강의에 집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서 (나의 조상님께 대한 다짐)

여름방학이라 막 놀기 바쁜 이 때에 솔직히 이 곳에 다녀오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정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거의 억지로 올라오시피 해서 첫째날 시조 할아버지 산소에 예배를 드리고 연속되는 강의와 꽃꽂이 등을 하면서 피곤하지만 한편으로는 처음과 달리 가슴 한 곳이 뿌듯해 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자랑스런 가문의 자손이구나...' 사실 그동안 제 뿌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정작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교육을 듣고 보니 역사라는 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옛날 시조 할아버지로부터 무수한 조상님들의 시간을 통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순김의 자손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가서도 당당한 남자가 되겠습니다.

김현수(sajik34@hanmail.net)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1동 268-75 14/4

제19기 교양 강좌시 찬조금 名單

성명	금액	비고
재준	金 貳百萬원	(학생 유니폼 포함)
지섭	金 貳拾萬원	
동주	金 五萬원	
춘희	金 五萬원	
상백	金 五萬원	
우영	金 參萬원	
정태	金 參萬원	
상운	金 五萬원	
안동종친회	金 貳拾萬원	
철우	金 五萬원	
학원	金 五萬원	

2004년도 장학금 수혜자 명단

중앙종친회

성명	학교	학년 및 학과
김계영	송실대	벤처학 3학년
김미경	숙명여대	약학과 3학년
김하나	전남대	임상공학 2학년
김은혜	카톨릭상지대학	전산세무 1학년
김미정	신라대	자연과학 1학년
김혜미	목포과학대	건강미용 1학년
김지은	정발고	3학년
김세연	안성고	2학년
김해선	경주여고	2학년
김유정	도계고	1학년

襄景公 史蹟地 淨化 事業 順調롭게 進行하다



존경하는 양경공과 종친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가내와 더불어 강녕하시고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평소 종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종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양경공과 종회 회장의 책무를 맡은 이후 본회의 발전과 양경공 사적지 정화 사업을 위해 미력이나마 혼신을 기울여 전력을 왔으며, 오늘 종보를 통해 정화 사업의 내용과 경과사항 및 향후의 계획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총5억여원의 예산으로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재실 및 종택 신축, 주변 조경 공사로 금년 10월 말 경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사당 신축 및 진입로 확장, 주차장 정비공사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 사업은 유류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계획수립, 사적지의 영구적인 보존 관리 방안 수립, 항구적인 제방 대책 수립과 양경공 현창 사업 및 기타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차후의 2, 3단계 사업은 늦어도 2006년 까지 完了토록 하겠습니다. 경덕재(景德齋)의 개수 공사는 예정대로 추진되어 지난 10월 2日 각 종파의 종친 30여분이 참석한 가운데 상량식(上樑式)을 거행하였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위선 사업으로서 마지막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양경공 사적지 정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국 종친 여러분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종보를 간행함에 있어 지면을 할애하여 주신 중앙종친회와 그간 종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甲申年 十月 一日 양경공과 종회 회장 謁熙

팔천 의군(八千 義軍) 위령탑 제막식 거행

• 6월 15일 충주시 탄금대 •

조선 선조 25년(1591년) 4월 일본은 21만의 병력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다 15일 동래성이 함락되고 25일에 상주를 점령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26일 문경을 점령, 조령을 넘고 있었다. 나라가 위급 지경에 이르러 총장공 신립장군은 김여물을 비롯한 80여명의 군관만을 데리고 전장으로 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초군한 8000여명의 군졸과 26일 이곳 충주에 이르러 북상하는 왜군을 막아내기 위해 진을 치고 이곳에 주둔하였다. 28일에 이르러 일만 오천의 고니시(소서행장)군이 3개대로 나누어 공격해 왔고 신립장군과 김여물부장을 비롯한 8천여명의 군사들은 목숨을 던지는 처절한 전투를 수행하였다. 배수진(背水陣)이라는 세계 전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전부대원이 모두 순절하는 옥쇄작전(玉碎作戰)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조총과 같은 신무기와 조련된 군사력 앞에 오로지 위국과 충절의 단심만으로 대항하여 조선군의 운명을 떨쳐보였던 것이다. 이제 열두대 뒤로 배수를 이루었던 남한강과 달천강이 도도하게 흘러 400여년전 그토록 용맹했던 신립장군과 여물부장 외 팔천의군의 애국충절과 천추의 한을 증언해 주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총장공 신립장군과 장의공 김여물 종사관을 비롯한 8천여명에 이르는 의군들의 뜻을 받들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팔천고혼 위령탑을 세우고 의군 위령제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중앙종친회에서는 종식회장을 대신하여 안동종친회 월우회장 하연, 덕수 종친 등이 참석 의례에 따라 헌작하고 충주시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함께 동참, 장의공 휘 여물할아버지의 애국 충절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었다.

국담정사 중수(重修) 순조롭게 진행

• 안동, 구담 국담공(휘·有濶) 재실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동에 있는 휘(有濶) 국담공 재실 수리가 후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 140여 후손들이 헌성한 총 사업비 4천여만원을 들여 수리되는 국담정사는 마당과 담장 단장을 끝내고 내부 수리 공사에 들어갔다

국담정사 내부는 협소한 방3칸을 넓히는 작업을 비롯해 주방·욕실 등을 새로 단장하는 등 다음달 중순(음 10월 13일) 시향제 전에 수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안동종친회장을 비롯한 추진위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해 견고한 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금년 시제는 많은 후손들이 참석하여 새롭게 단장된 재실에서 종사를 논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종사(宗事)에 공이 많은 종친에 감사패 전달

중앙종친회는 평소 종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국 각지역 종친 중에서 다음 7인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에 감사패를 받는 종친 7명은 대동보 편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일가 종친들의 수단 활동과 대동보 편찬 홍보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감사패를 받게 됐다.

<감사패 수여 종친>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동근(東根)	1933. 11. 22일생	광홍(光弘)	1942. 4. 1일생
병준(秉準)	1939. 2. 1일생	동훈(東勳)	1932. 10. 11일생
봉빈(奉斌)	1935. 3. 29일생	정순(貞順)	1935. 2. 25일생
학순(學淳)	1933. 11. 26일생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會館建立 趣旨文

우리 順天金氏는 新羅 憲安王(857~860)대에 順天(昇平)으로 分籍되어 現代에 이르기까지 1150餘年이란 悠久한 歷史를 거친 名門華閥의 氏族이다. 우리 順金은 儒賢相將이 代를 이어졌으며, 三公六卿과 鴻儒名官이 王朝마다 있었으니 王朝와 時代에 가림없이 國家에 報國忠節하였으니 빛나는 閥閥의 大姓으로 祖上의 崇德偉業을 尊慕할 일이다. 우리 順金의 後孫은 尊貴한 祖上의 偉業을 이어받고 忠孝愛國하고 敦睦團結하는 自矜心으로 現代에 이르렀으니 그 中心에 中央宗親會가 있다.

西紀 1989年 9月 24日 玄岩빌딩 28層 大講堂에서 全國 各派宗親代議員 5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順天金氏 中央宗親會가 創立되었다. 順天金氏의 氏族史에 처음으로 가슴벅차게 始作하였으니 初代會長에 國會議員인 金鍾植 宗親을 萬丈 公道로 選出하고 一本同根이라는 愛族의 精神으로 和合團結하면 名門華閥의 家門이 될 것이라는 旗幟로 在任期間內에 우리 宗中에서 애타게 宿願한 爲先事業을 비롯하여 屈指의 大姓다운 中央宗親會 會館을 建立하여 五萬餘 宗親의 殿堂이 되겠다고 披瀝하였다. 中央宗親會가 創立發足後 宗親會事務室을 서울 麻浦區 桃花洞 한화그룹 系列社 太平洋建設(주) 建物에 入住 職務遂行을 着手하였다. 그 時 會長 升淵 宗親은 先親 鍾子 喜子 玄岩公의 遺志를 이어받아 宗親會 事務室을 비롯하여 什器 一體를 配慮하여 주었다. 이런 協贊은 現在까지 持續되니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名門大族 順金의 獨立된 宗親會館이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 禁하지 못한다.

中央宗親會는 創立 以後 組織의 發展과 宗親間이 大同團結, 始祖聖地의 聖域化, 後孫의 教育 等 군은 淸心을 規範삼아 吾金의 矜持를 子孫 永世토록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自負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甲申大同譜(2004)가 編纂되어 頒帙이 完了되어 이제 우리 順金의 氏族史가 올바르게 正립되었으니 앞으로는 順金의 時代史의 位相提高와 올바른 後孫教育, 各派門中 및 宗親의 求心體의 必要性 等を 爲하여 中央宗親會館 建立의 必要性이 切實해지고 있다.

尊敬하는 宗親 여러분, 언제까지 한화그룹의 支援에만 依支하고 있을 수 없어 2004年 4月 24日 同源齋 始祖 春享祭 및 位牌奉安 時 全國 各派 門中 後孫 約 450餘名이 雲集한 가운데 中央宗親會 會館 建立에 對한 論議가 自然스레 發議되어 襄景公 四子 有字 儉字 判書公 後孫門中 志變族從이 會館建立發起文을 發表 朗讀하고 參席 宗中員에게 昭明하게 說明하고 贊否를 提議한 바 滿場一致 拍手로 合議 決議하였다. 推進計劃에 中央宗親會長 鍾植 宗親을 推戴하고 餘他 任員은 會長에게 委任하여 會議를 開催하고 推進計劃을 樹立하여 會館建立業務에 邁進하기로 하였다.

中央宗親會 會館 建立 必要性

1. 現代社會가 氏族史의 研究없이는 宗族이 史學的으로 分類된 理致를 理解할 수 없으며 自己의 氏族의 環境에 崇祖思想의 缺如로 氏族觀이 없어지게 마련이다. 이리하여 族譜에 漏譜가 되고 結局은 自己 및 後孫까지 뿌리를 잃게 된다. 宗親會館은 宗親들의 氏族史 教育場으로 活用과 祖上의 業績과 뿌리사에 對한 研究, 每年 教育計劃을 樹立하여 後孫에게 崇祖思想의 涵養과 教育을 強化하여야 할 것이다.
2. 21世紀 現代社會는 文化와 精神의 價値, 時代의 變化가 極甚하여 작게는 家庭의 重要性에서부터 나아가서는 氏族史의 重要性和 正體性이 破壞되어가고 家父長制의 崩壞와 戶主制의 廢止 等으로 뿌리의 重要性에 對한 根幹이 흔들리고 있는 昨今에 韓國 現實 社會의 家系의 正統性和 歷史學術 次元에서 氏族史를 體系의으로 研究하여 이 땅에 種族의 文化의 暢達과 定着을 이루기 爲해 우리 氏族次元에서 力量을 모아 中央宗親會館을 建立하여 우리 後孫의 山 教育의 殿堂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敬愛하는 宗親諸位 여러분 우리 順金은 祖上이 남겨 주신 家聲이 無墜하고 永遠 繁盛함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까. 高邁하신 祖上님 後孫으로 그 高貴한 業을 이어 繼承發展하고 報本反始하는 子孫의 道理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中央宗親會가 發足되어 15年間 宗族의 重要性和 愛族敦睦하는 矜持도 培養하였고 崇祖思想도 涵養하여 爲善事業의 實踐과 그 重要性도 宗親 諸位에게 再 認識시킨 것으로 自負한다. 우리 順金은 始祖 以後 1150餘年의 歷史를 지닌 大姓 閥閥의 門中으로 五萬餘 宗親이 全國에 散居하고 있다. 名門華閥이라 自負하면서도 아직 中央宗親會館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後孫으로서 慨嘆하고 싶은 心情이다. 各派 門中은 派門 中대로, 財力있는 宗親은 個別的으로 各 宗親이 熱과 誠意를 다하여 獻誠하고 協贊 丹誠으로 大同協力하여 和合團結한다면 中央宗親會館이 建立되어 祖上의 蔭德이 더욱 널리 비칠 것입니다.

여기에 변함 없으신 祖上님 恩寵이 계시어 우리 素朴한 꿈이 이루어 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 모두가 宗事와 爲先事를 위함이니 積極的으로 聲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甲申 2004年 7月 夏至
 順天金氏中央宗親會 會館建立推進委員會 顧問 會長團 一同

宗親 회관 건립을 위해 문중이 하나 됩시다!



존경하는 宗親 여러분!

그동안 物心 양면으로 宗事に 協力하여 주심에 크게 感謝함을 전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끝도 없이 많았지만 지난 89년 中央宗親會가 창립된 이래 우리는 유·무형의 업적 또한 많았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시조묘역은 한화그룹의 김승연회장이 선대의 유지를 받들어 거금을 희사함으로써 석물은 물론 묘역정화, 가락당 준공,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 입구에서부터 도로 확장 등 실로 옛날과는 달리 모든 것이 성역화 되었습니다. 이제 동원재 앞 삼문만 새로 건축된다면 우리 모두의 성지로 손색이 없을 줄로 압니다. 15년 동안 이 어려운 宗親會를 이끌어 오신 鍾植會長任께 다시한번 感謝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97년 시작된 대동보 事業은 일부 계파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歷史的으로 2004년 전계파가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大同譜를 만들어 낸 것은 현 회장님의 확고한 의지의 소산이라 할 것입니다.

시조님 이하 실전된 상계대의 정립은 이번 대동보의 핵심이자 우리 모두의 염원이었습니다. 7년여 歲月이 길고도 힘든 時間이었지만 후대에 길이 남길 족보가 완성되어 全國各地의 宗親들에게 모두 반질을 완료하고 보니 그 감회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宗親 여러분! 宗事란 대개 크든 작든 이해 관계로 말미암아 의견의 충돌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조상과 나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일로써 결국은 하나로 결론이 되고 뭉치게 마련입니다.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동보 출간까지는 7년여 오랜시간이 걸렸고 일부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조직적으로 하면서 宗親會 운영에 발목을 잡아

은 것은 다시한번 우리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똘똘뭉쳐 회관건립에 동참할 때>

우리들의 남은 큰 소망이 있다면 宗親會館을 갖는게 큰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宗親회 일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크게 걱정이 앞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맡로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 회장님의 15년 임기동안 공과를 막론하고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음은 자타가 공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회장님이 아니고서는 회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며 자못 걱정하는 것이 宗親들의 공론입니다.

존경하는 宗親 여러분! 그 분의 의사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앞두고 한마음으로 의견을 모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일이 성패의 관건이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다시 우리들의 큰 기대와 꿈은 사라질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방과 종파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구심점인 중앙宗親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모래성은 아무리 노력해 쌓아도 어느새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초석이 단단한 토대 위의 건물은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뭉칩시다. 마지막 남은 대종사의 회관 건립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한방울 한방울 모인 물이 큰 내를 이루듯이 뭉치면 큰 힘ियो. 의견이 달라지면 우리 문중은 또 다시 긴 시간 갈등과 분열로 인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문중은 어느 타문중보다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쓰라린 과거에서 분연히 털고 일어나 합력 넘치는 宗親회로 바꾸어 갑시다.

중앙宗親회 간사장 봉환 드림

始祖府君에 관한 一考

우리 譜牒에 보면 始祖府君께서 신라 47代 憲安王 朝에 引駕別監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甄萱(견훤) 또는 弓裔(궁예) 시의 引駕別監(인가별감)이셨다는 史書의 記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懷疑(회의)를 금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몇가지 關聯文(관련문)을 살펴보고 또 어찌하여 그 地域의 守護神으로 추앙을 받으셨나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古文獻에 실린 始祖府君 關聯文

書誌名	年代	著者	關聯文
新增東國輿地勝覽 (신증동국여지승람)	1486 (成宗代) 1530 (中宗代)	盧思愼 등 (노사신) 李衍 등 增補 (이행) (증보)	◎ 金擧仕甄萱 官至引駕別監 死爲府城隍神 (김홍사견훤 관지인가별감 사위부성황신) ※ 金擧은 甄萱에 벼슬하여 引駕別監이 되었고 죽어서 이 고을의 城隍神이 되었다.
昇平志 (승평지)	1618 (光海君代)	이수광	◎ 后百濟 金擧仕甄萱 官至引駕別監 死爲城隍神 (후백제 김홍사견훤 관지인가별감 사위성황신) ※ 后百濟의 金擧은 甄萱에 벼슬하여 引駕別監이 되었고 죽어서는 城隍神이 되었다
江南樂府 (강남악부)	1784 (正祖代)	趙顯範 (조현범)	◎ 金別駕英雄人.....祠在進禮山 自官遣儒生 (김별가영웅인.....사재진례산 자관견유생) 春秋致祭 (춘추치제) ※ 김홍은 영웅이었는데.....祠堂은 進禮山에 있고 지금도 官에서 儒生을 보내 봄·가을 제사 지낸다.
增補文獻備考 (증보문헌비고)	1782 (正祖代) 1903 (高宗代)	李萬運 (이만운) 朴容大 (박용대) 등 30人 증보	◎ 本新羅宗姓 弓裔時引駕別監 移籍順天 封平陽君 (본신라종성 궁예시인가별감 이적순천 봉평양군) 死爲 本府城隍神 (사위 본부성황신) ※ 本이 新羅宗姓으로 弓裔때의 引駕別監을 지냈고 順天으로 移住(이주)하여 平陽君(평양군)에 봉해졌으며 죽어서는 이 고을의 城隍神(성황신)이 되었다
始祖影幀 (시조영정)	17세기 後半	未詳	◎ 城隍神 金擧 金將軍 (성황신 김홍) (김장군)
順天金氏世譜 (순천김씨세보)	1764 (英祖代)	金百鍊 등 編纂委員	◎ 以新羅宗姓 籍順天 官至引駕別監 封平陽君 (이신라종성 적순천 관지인가별감 봉평양군) ※ 신라 宗姓(종성)으로 順天에 사셨고 引駕別監을 지내셨으며 平陽君(평양군)에 봉해지심
順天金氏家乘 (순천김씨가승)	未詳	未詳	◎ 字元領 以新羅宗姓 籍順天 官至引駕別監 (자원령 이신라종성 적순천 관지인가별감) 擊倭寇奉王駕還京師..... (격외구봉왕가환경사....) ※ 字는 元領이시고 신라종성으로 順天에 사셨으며 왜적을 격퇴함. 벼슬이 引駕別監으로 서울(慶州)로 돌아가는 王駕를 호종함....

※ 新羅宗姓 - 新羅 金氏王家의 一家 부지
 ※ 引駕別監 - 王의 즉근에서 호위하고 王 行次時 王駕를 호종하는 벼슬
 ※ 城隍神 - 中國에서 전래된 신앙으로 한 지역을 守護(수호)하는 神
 <6世紀경 중국에서 발생하여 唐을 거쳐 宋代에 번성하였으며 우리나라 高麗시대에는 고을마다 城隍神이 있었고 金富弼이 妙淸의 亂을 토벌하려 갈 때와 李奎報가 慶州의 農民의 亂을 토벌하려 갈 때도 城隍神에서 제사를 지내고 가는 등 城隍信仰이 성하였었다.> <박종기著 "500년고려사" 참조>

正史라고 하는 新增東國輿地勝覽과 增補文獻備考 의 內容中 "官引駕別監" 이나 府城隍神" 부분은 합치되고 公의 影幀에도 城隍神 金擧이라 써어 있으니 믿을 수 있으나 甄萱이나 弓裔시 引駕別監이란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首肯하기 어렵다.

- 첫째, 輿地勝覽과 文獻備考의 이 부분의 내용이 相衝(상충)되고,
- 둘째, 그들의 引駕別監이었다면 그 지역 수호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었으며,
- 셋째, 그들의 引駕別監이었다면 高麗와 朝鮮조에서 어찌 祭享까지 지내며 추앙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文獻備考 增補時 輿地勝覽의 공에 관한 "仕甄萱" 부분이 의심적어 公이 弓裔의 后孫으로 잘못 실린 某金氏世譜가 참고된 듯 하여 다시 한번 의심을 갖게 된다.

다음에 그 지역 백성들이 公을 城隍神으로 받들든 까닭과 公의 活動年代를 당시(850年代)의 그 지역 情況(정황)과 연관해서 추리해 보기로 한다.

827年(興德王2) 張保臯가 唐나라의 벼슬을 버리고 귀국하여 海賊(해적)들이 신라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와 종으로 팔아먹는 만행을 나라에 곱하니 莞島에 淸海鎮(정해진)을 설치하고 張保臯를 鎮大使로 임명하여 이 地域을 安定시키게 하였었다.

(이현희 著 "한국의 역사" 등 史書 참조)

다음은 國史大辭典의 年代表에서 발췌한 것으로 당시의그 地域情況을 대강 살필 수 있을 것이다.

國史大辭典		우리의 見解
839 (文聖 1)	◎ 神武王 죽고 慶膺 王位 (文聖王) 오름	※ 張保臯軍 앞세워 王軍 격파하고 王位에 오른 神武王 죽고 아들 慶膺 王位에 오름.
845 (文聖王 7)	◎ 張保臯의 딸 王妃 삼으려다 大臣들의 반대로 무산됨.	※ 張保臯의 딸 平民이라 大臣들의 반대로 王妃 약속 허사되고 張保臯 淸海鎮으로 돌아감.
846 (文聖王 8)	◎ 張保臯 淸海鎮에서 謀叛 (모반) 閣長 張保臯 살해	※ 張保臯없는 莞島 防備(방비) 허술해 지나 海賊들 다시 侵入(침입)하여 주민생활 어려워지자 張保臯를 따르던 住民들의 크고 작은 民亂 자주 일어나게 됨
851 (文聖王 13)	◎ 淸海鎮 철폐하고 그곳 住民들을 碓谷郡(김제군)으로 移住(이주)시킴.	※ 島嶼(도서) 住民 떠나니 海賊들 海岸(해안) 地域으로 侵入하여 약탈 등 蠻行(민행)을 자행하니 民生어려워져 各地에서 民亂 자주 일어나게 됨.
855 (文聖王 17)	◎ 西南州郡에 官員을 보내어 住民을 按撫(안무)함.	※ 防戍軍(방수군)을 보강하는 등 海賊 侵入에 對備케 하는 등 安定策을 제시하여 住民을 按撫함. 이무렵 武將이신 始祖府君께서 首將으로 파견되 시어 海賊團을 물리치고 民生을 安定케 하셨으리라.
859 (憲安王)	◎ 堤防(제방)을 수축하는 등 農業(농업)을 장려함.	※ 농사를 권장하고 民生에 힘쓴 憲安王 平野 地域인 이 지방을 巡視(순시)했을 수 있고 우리 家乘에 奉王駕還京師(봉왕가환경사)란 말이 있으니 王의 還都(환도) 길에 府君께서 引駕別監職을 받고 王駕를 扈從(호종)한 일이 있으리라.

張保臯가 죽고 그곳 防禦力(방어력)은 약해져 海賊은 다시 출몰하게 되니 張保臯를 따르던 住民들의 叛亂(반란)이 자주 일어나 851年 淸海鎮을 철폐하고 住民들을 海賊을 避해 內陸(벽골군)으로 移住(이주)시키게 되었다. 그러자 海賊團은 順天 등 海岸地域까지 侵入하게 되고 따라서 民生이 어려워지니 騷擾(소요)가 자주 일어나 855年 조정에서는 官員을 보내어 按撫(안무)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무렵 武將(무장)이신 公이 이곳으로 파견되어 防戍軍(방수군)을 이끌고 출몰하는 海賊團단을 격퇴하여 民生을 편케 하시니 公 死後(사후)에 백성들이 進禮山에 公의 영정을 모시고 城隍神으로 받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公의 年代는 弓裔(895년 王자칭)나 甄萱(892년모반 900년后百濟建國)보다 3·40년 앞선 분이고 따라서 그들代의 引駕別監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우리 譜牒에 보면 2世祖이신 諱裕 할아버지께서 893년 甄萱軍을 토벌했다는 말이 있으니 이 또한 주목할 일이다. 그러면 어느代의 引駕別監이셨을까? 서기 857년 王位에 오른 憲安王은 上揭한 바와 같이 859年 堤防(제방)을 수축하는 등 농업을 권장한 王으로 西南平野 지방에 行幸(행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 家乘에 "奉王駕還京師"란 말이 있으니 그때 公께서 引駕別監의 職을 받고 還都(환도)하는王駕를 扈從(호종)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推理(추리)를 해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譜牒에서 말하는 憲安王 때의 引駕別監이셨음이 옳은 말이 된다.

우리 譜牒에 보면 高麗太祖가 公의 祠堂을 安官祠(안관사)라 賜額(사액)하고 매년 향사케 하였다 하였고 朝鮮조 후기에도 官에서 春·秋로 향사케 하였음을 學者 趙顯範이 江南樂府에 썼고 "金別駕(金擧)는 英雄으로서 平陽을 얻지 못하였으나 사후에 城隍神이 되어 그 陰德(음덕)이 후세에 전해져 文武의 賢臣이 많이 나왔다..." 고 칭송하기도 하였다. 오늘 날에도 그곳의 古老들은 金將軍 金將軍 하며 존대하고 있지 않은가

위와 같이 新羅 末葉 그 地域의 守護神(수호신)으로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高麗朝를 거쳐 朝鮮 朝에서도 祭享을 받으셨으며 20世紀初 百神撤享令으로 그곳에서 公의 影幀을 同齋齋로 移安할 때까지 千余年間 그 地域 守護神으로 推仰(추앙) 받으신 우리 始祖府君이시니 우리 后孫들 어찌 矜持(금지)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順天金氏의 家寶는 甲申大同譜



甲申대동보 序文에 김상홍박사는 시조이신 攄자 할아버지는 신라현 안왕때 인가별감으로 順天(昇平)에서 外寇를 征伐하고 仁政을 베풀어 死後에는 民衆의 城隍神으로 推仰 받았을 뿐 아니라 高麗太祖는 公의 行蹟과 遺德을 欽慕하여 安官祀를 지어 賜額하였다고 하였다...옳으신 말씀이다.

모든 宗親들은 同大同譜를 수많이 살펴보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양경공, 절재공, 북저공 등 領相할아버지는 물론, 더 많은 忠義烈士와 偉勳을 펼치신 수 많은 할아버지들을 만나보시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義와 孝가 몸에 배인 선비정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後孫들을 잘 育英하시어 오늘의 名門赫閣을 이루어 놓으신 할아버지들의 노고를 어찌 壯하다 않으리... 우리들은 이 大同譜로 말미암아 오늘의 險難한 世波를 헤쳐 가는데 큰 指標가 되고 더욱 尊嚴함을 가지게 됐으니 얼마나 多幸한 일입니까? 이제 後孫된 우리는 더욱 敦篤和睦하여 崇高한 祖上들의 業에 보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族譜의 由來

나아가 族譜의 由來를 한번쯤 살펴보고 가는 것도 癖 意味가 있을 듯 하여 여기 잠깐 소개하면, 族譜란 一家의 系譜를 기록한 家系譜로 우리도 高麗時代때 왕실에서는 이미 편찬해 왔으며, 民間편찬이 허용된 것 중 가장 오래된 族譜는 1476년(成宗7년)발간된 안동권씨의 成化譜이며, 名門들에게 一般화된 것은 閔族의 세력이 서로 對峙하고 同姓一家의 觀念이 뚜렷하게 된 이후부터인데, 族譜 간행을 더욱 촉진시킨 要因으로는 :

同姓不婚, 昭穆秩序 및 尊卑區分의 明確化와 嫡庶의 區分, 黨派 등을 一目瞭然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族譜는 認定받는 名門外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現代에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하지만 封建時代에는 兩班氏族이 아니면 가질 수 없었는데 말하자면 兩班이라는 證書와 같은 것으로 이것(族譜)이 없으면 常民으로 轉落하여 負役 및 兵役 등이 賦課됨으로 朝鮮時代 中期 이후 내노라하는 權門巨族들은 다부어 族譜製作에 큰 힘을 쏟았답니다.

大同譜와 派譜의 差異

族譜는 始祖부터 自己에 이르기까지의 一族 全體를 말하는 大同譜와 有力한 人物을 派祖로 하여 一派를 單位로 해서 編纂되는 派譜, 系譜, 家乘 등이 있습니다. 大同譜 편찬은 그 規模가 크기 때문에 大氏族인 경우 거의 불가능하고 따라서 30~40년을 週기로 편찬되는 派譜가 그

主流를 이루었고, 이 派譜는 始祖까지의 系譜와 各派間의 系統이 분명히 드러나야 族譜로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著名한 他姓이 推薦함으로써 族譜나 系譜로서 정확성을 認定 받을 수 있었다 합니다.

族譜의 必要性

族譜의 기록을 통하여 祖上의 業績을 살펴보고, 自矜心을 불리일으켜 宗中의 協同과 相扶相助 그리고 相互敎化의 역할을 담당케하여 왔기 때문에 宗中의 團合과 社會的 統合의 機能을 수행하는데 先導의 역할을 하므로 오늘날에도 그 存在價値를 認定받고 있습니다.

順天金氏의 族譜

우리 順天金氏의 族譜는 哀惜하게도 世祖以來 政變의 人爲의 被禍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가, "1764년(英祖40년) 甲申譜"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됐으며, 이어 "1797년에 丁巳譜", "1957년의 丁酉譜"로 이어오다가, 비로소 "1984년 甲子大同譜"를 발간한 이후, 漏譜된 上系를 照明, 發掘, 考證하여, 다시 大統合을 이루기 위한 長長 7년간의 產苦 끝에 이렇듯 雄壯하고 華麗한 甲申大同譜를 2004년에 發刊 配布하게 됐으니 얼마나 자랑스런 일입니까? 그간 編纂 중 말 못할 이런 저런 많은 險路를 헤치고 相生과 和合을 根幹으로 서로 讓步하면서 은 精誠을 다바쳐 大同譜 발간에 凱歌를 올리신 中央 宗親會 金鍾植 회장을 爲始하여 편찬위원, 수단위원, 편집위원, 교정위원, 기타 이에 聲援하시고 積極 奉仕하신 여러 宗親들의 勞苦에 머리 숙여 眞心으로 感謝를 드리면서 이 대동보가 總宗親에는 寶物1號가 되고, 宗員 各家庭에는 崇高한 家寶로 영원히 자리 잡을 것으로 思料되오나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以北과 中國의 우리 順天金氏가 함께 하지 못한 것은 한없는 아쉬움으로 남긴 채 곧 그 날이 오기를 嚮수 고대하면서, 삼가 宗親 諸賢의 健安과 家內에 萬福이 깃들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42世孫(양경공2대손) 春亨 金相默

註釋 : 昭穆은 1. 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차례로서 左를 昭, 右를 穆이라 함
1世를 中央으로 하여 昭에는 2, 4, 6世를
穆에는 3, 5, 7世를 配享함
2. 또 宗族의 序列이라고도 함

충정공 재실 상량식 및 이사회 개최

지난 10월 5일 경기도 여주시 가남면 언대리 충정공(휘·유양) 묘역에서 충정공과 종회 재준 회장을 비롯한 각과 임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 및 재실 상량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2005년도 충정공종화사업계획

1. 충정공 묘역정화사업
 - 1) 경내 단장 공사
 - 2) 정문공사
 - 3) 조경사업 마무리
2. 이사회 개최 (명년 봄)
3. 회장단 회의 개최(명년 여름)
4. 주계 시향일과 연계 정기총회 개최
5. 신축 연대재준공 (금년 시향일)

※ 추이 : 충정공종회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본식 납골묘 설치

경주 양남문중 상대 회장



慶州 陽南門中 會長 商太 宗親은 日本에 居住하면서도 恒常 마음은 故鄉 陽南에 머물러 있어 每年 宗親 行事와 伐草 또는 墓祭에 빠짐없이 參席하고 宗事에 헌신하면서 死後 유골이라도 故鄉에 묻히겠다고 所望하던 中 今年 봄에 陽南 水念里 山 折衝將軍 諱鼎煥 六代祖 墓所 끝자락에 全門中의 도움과 協力으로 日本式 납골묘를 미리 設置하고 지난 6월 13日 門中 宗親을 招請하여 준공 잔치를 배설했다



訃音

名譽會長 諱采庸 諱日 음 6월 18일 葬地 : 海南山二面 先塋下
顧問 諱大潤 " 양 9월 2일 " : 연풍면 연풍리 신혜원 先塋下
顧問 諱圭南 " 양 6월 16일 " : 保寧市 杜龍里 先塋下
前副會長 諱東秀 " 양 8월 28일 " : 안동시 외룡면 "

그동안 宗事와 本會發展을 위해 진력하신 위 네분 宗親께서 위와 같이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이에 깊은 哀悼의 念을 올리고 삼가 명복을 빕니다.

御史公派 節度使公의 子 以下 9世 追慕壇 설단

御史公派의 節度使公 諱孝有의 子 以下 9世 <諱重文諱義 亨諱壽德諱宗繼 諱百鎮 諱順庸 諱昌元 諱成教 諱浣> 의 墳墓가 失傳되어 于今껏 香火도 못 올린다 晩時之歎이나 后孫들이 淨財를 獻誠하여 冑孫奉植과 徹熙, 漢壽, 등의 主管으로 翁인시 구성을 보정리 先山에 아래와 같이 追慕壇을 설단하고 每年 음력 10月 13日에 祭享하기로 하였다.



삼상사중건상량문 (三相祀重建上梁文)

삼가 생각하건대,
정승의 역할을 다하여 그 공이 정이(鼎彝)에 새겨졌으니,
산두(山斗)처럼 우러러 보고 경장(羹樑)처럼 사모하도다.
청사(靑史)에 전해지는 것은 모두 옛날 어진 분들의 성대한
덕 때문이요.
사당(祠堂)에 제사를 모시는 것은 바로 후손들의 지극한 정
성 때문이네
그래서 사당을 지어서, 우리는 제향을 지내도다

우리 김씨는,
예의 문물이 성대한 바로 소화(小華)의 나라에서 태어났고,
벌벌한 양반 집안으로 승평(昇平)의 고을에 본관을 두었네.
열성조(列聖祖)의 융성한 시대는,
바로 세 어진 정승 배출된 때였네.

삼가 생각하건대,

양정공께서는
경륜(經綸)으로 세상을 구제하신 영재이셨고,
익대좌명(翼戴佐命)이란 위대한 공을 세우셨네.

몸은 삼상(三相)의 자리인 황각(黃閣)에 오르시고,
공은 맹약(盟約)을 기록한 단서(丹書)에 실리셨네.

충익공께서는
귀로는 옥계의 유언을 들으시고,
등으로는 황문(黃門)의 그림을 지셨네.
충주(沖主)와 원로(元老)는 봉황의 날개를 단문(丹門)에서 부
러뜨리고,
정부(貞婦)와 효자(孝子)는 칼날에 목숨을 기러기의 털처럼
가볍게 버렸네.

문충공께서는
광해가 패륜(悖倫)하던 날 강상(綱常)을 불드셨고,

인조의 반정(反正) 초에 종묘사직을 잘 보위하셨네.

호당(湖堂)에서 전형 말아 오래도록 문형(文衡)의 권한 가지
시고,
묘정(廟庭)에 배향되어 편안하게 부조의 은혜를 입으셨네.

또한 생각하건대,

담양공께서는 사가(謝家)의 보수(寶壽)를 이어받았는데 갑자기
절재(節齋)의 화를 만났고,
도령(陶令)의 고송(孤松)을 어루만지며 비로소 춘동(春洞)의
사당을 건립하셨네.
감히 원우(院宇)의 금령(禁令)을 어기고,
권변으로 단선의 정령(精靈)을 받드셨네.
흑석(黑石)의 기슭과 청계(淸溪)의 가에 묘정(廟庭)이 묵은
것을 한탄하시고,
바람부는 새벽과 비 오는 저녁에 집을 덮을 것을 생각하셨도
다.

남긴 터에 터를 다지는 것을 어찌 청구(靑丘)의 짐을 기다리
라?
농한기에 역사를 일으키니 풀 누린 겨울철을 만났도다.
제기를 간직하려고 동쪽에는 재직실(齋直室)을 두고,
서적을 두려고 서쪽에는 강례당(講禮堂)을 개설하였네.
공손히 시간휘비장을 기술하고,
우르러 대하홍량의 공사를 돕도다.

어여차! 들보를 동쪽으로 우쭐대니,
옥녀봉 높다란데 해는 동쪽에서 솟아오른다.
색실로 세 상국을 수를 놓았으니,
찬란한 청사가 우리 동방을 빛냈네.

어여차! 들보를 남쪽으로 우쭐대니,
만 길이나 된 금강 북두 남쪽에 솟았네.
정기가 우람한데 누가 우러러보지 않겠는가?
준결하고 아름다운 선비를 다 동남에 나왔네.

어여차! 들보를 서쪽으로 우쭐대니,
용지(龍池)가 일렁이어 창문 서쪽에 푸르네.
크게 가물려고 할 때에 장마비를 만났으니,

만고에 상암(商巖)이 완연히 서쪽에 있도다.
어여차! 들보를 북쪽으로 우쭐대니,
찬란한 별들 북신(北辰)을 향하네.
동량으로 쓸 재목 어느 것이 마땅하나?
업동설한의 바람 속에 빛이 나는 그 송백이.

어여차! 들보를 위로 우쭐대니,
우뚝한 대마루 구름 위로 솟았네.
다일에 등유(東維)와 기성(箕星)을 타고 가셨으니,
요대에서 우리 성상을 둘러서서 모시리.

어여차! 들보를 아래로 우쭐대니,
맹진(孟津)이 떠처럼 산을 감돌아 흐르네.
영령은 강호에 오르내리시기를,
끝없이 지하에 흐르는 물과 같이 하시리.

삼가 바라건대,

상량을 한 뒤로는,
아름다운 동인우문(同人于門)과,
우뚝 솟은 대장(大壯)의 집에서,
백세토록 제수는 향기로운 맛을 내고,
한 고을의 금신(紳紳)들 많이 모이며,
하늘은 장차 생민을 은혜롭게 할 상서를 내리고,
풍도는 족히 완악한 사람은 정렴하게 만들고 나약한 자는 자
립하도록 만들소서.

기미년 10월 임인일(壬寅日)에 후손 경기전침랑(慶基殿寢郎)
두익(斗翼)은 삼가 기술함.



종친논단

동백꽃

김종환(수필가, 남은공 16대손, 시조 42세)

수양대군이 정권 장악과 왕위 찬탈을 위해 계유난(1453)을 일으켜 여러 고명대신을 제거했을 때, 그 첫 희생자가 절재공 김종서 장군이었다. 음력 시월 초열흘의 서늘한 달빛이 괴괴히 흐르는 절재공 자택 뜰 (지금의 서대문 농협박물관 자리)에서 수양대군의 총북 임운(林芸)이 휘두르는 철퇴에 맞고 쓰러진 장군의 머리에선 선혈이 낭자했다. 한 뜰에 있었던 절재공의 장남 승규공이 아버지의 비명에 이어 수양대군의 가복 양정(楊汀)의 칼에 맞아 그 자리에서 비명횡사하고, 그 외의 가족과 가복들이 참살을 당해 가문이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되었다. 피투성이 시체들이 즐비하게 널부러진 위로 무심한 달빛만이 처연히 내리비치고 있었다.

당시 담양부사로 재직하던 김효우(金孝友)공이 족조(族祖) 김종서공의 참화를 전해 듣고 한양을 향해 앞뒤로 대성통곡한 후, 동생 김효손(金孝孫)공과 함께 가솔을 이끌고 남하하여 해남평 흑석산(黑石山) 밑에 은둔한 곳이 바로 나의 고향 마을 방춘(芳春)골이다. 김효우공은 와우형(臥牛形)인 마을 뒤를 동백나무와 대나무, 소나무로 에워싸 심고 사시사철 푸른 생울타리로 만들었다.

김효우공은 족조 김종서공의 꺾이지 않은 굳은 절의와 충절을 사모하고 존송하여 남도의 깊은 산골에서나마 늘푸른 동백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소나무로 마을을 둘러쳐 그 기가와 기상을 사표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역적으로 몰린 절재공을 드러내 놓고 경모의 정을 나타낼 수는 없는 일인지라 푸른 지조를 지닌 나무들에 그 마음을 심어 은연중 사무친 뜻을 표현했던 터이다.

역적으로 공포된 절재공은 의지없는 고혼(孤魂)으로 떠돌다가 3백여년이 지난 영조 대왕 때에 이르러 비로소 신원(伸寃)되었으므로 김효우공은 평생을 원망의 한을 품고 숨죽이며 은둔생활을 해야 했다. 그래서 김효우공의 호는 남은공

(南隱公)이다. 남도에 은둔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나는 남은공(順天金氏)의 16대손으로 태어났다. 나는 의람되이 내 아호를 고향마을 이름을 본따 방촌(芳村)이라 하여 고향 마을을 늘 마음속에 그리며 산다. 다만 조상들의 신성한 일이 서린 고향의 영광을 위해 살지는 못할망정 욕되게 해서 안 되겠다는 조심스러운 마음이다.

요즘 세상일이 다소 분주다사하여 심신이 고달파서인지, 고향의 동백나무가 문득 보고 싶다. 마을 뒷동산에 군락을 이루고 마을을 안위하며 굽어보는 동백나무의 청정한 숲이 눈에 삼삼하다. 담록색의 운기를 띠고 세상의 티끌 먼지와 인간의 번뇌를 정화해 줄 듯이 사철 변함없는 싱싱하고 튼실한 동백나무의 잎들이 새삼 선하게 다가온다. 동백나무의 단아한 모습과 청록의 단단한 가지들도 정겹게 다가오고 그 가지들을 붙잡고 올라가 동백꽃 꿀을 따 마시던 어린 시절 그 추억의 맛도 감미롭게 감돈다.

아, 때로는 번거로운 세상살이, 절없이 뛰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고향의 동백나무 숲에 포근히 기대고 싶다. 나도 한 그루 동백나무가 되어 사철 푸른 잎으로 마을을 안위하며 조용한 지관(止觀)의 삶을 살고 싶다. 화와 복의 쌍곡선인 인생의 운명에 놀아나지 않고 순천순명(順天順命)의 평화로운 마음으로 한 자리를 지키는 무욕 무념의 나무를 닮고 싶다.

고향의 동백나무는 몇 백년이 되어도 그 고절(高節)한 기상으로 추호의 흐트러짐 없이 5백년의 한(恨)을 넘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청결한 영혼을 지켜 오고 있다. 그 푸른 의지와 강인한 용기로 조상의 숭고한 넋을 간직하며 한결같이 지켜왔다.

그렇다. 동백나무의 푸른 의지와 고결한 자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동백꽃의 불타는 정열도 백년 천년, 나아가 영원을 향해 타오르고 있다.

눈 속에 묻혀 피어나는 동백꽃의 붉은 지조를 보았는가. 차가운 백설 속에서 내뿜는 붉은 정열의 일편단심을 보았는가. 붉게 타오르는 꽃잎 안에 노오란 평화의 꽃술을 보았는가. 노오란 꽃술 밑에 백옥 같은 속살을 품고 그 안에 고이 간직했다 나누어 주는 시원 달콤한 꿀맛을 보았는가.

그 감미로운 꿀맛, 맛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도통한 푸른 잎의 광합성과 감인한 줄기의 수액과 붉은 정열의 꽃잎이 합작하여 만들어 낸 자연의 정수인 동백꽃 꿀맛은 본 사람만이 안다. 이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안다고 한다.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알고 고난을 겪은 후에야 참 평안을 안다고 한다. 불행해 본 연루에야 행복을 알고 한서린 눈물을 흘려 보아야 인생을 안다고 한다.

공자는, 추운 겨울을 지낸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를 안다(歲寒然後知松柏操)고 했다. 옛사람들이 세한삼우(歲寒三友)를 송죽매(松竹梅)로 정해 놓은 것은 동백나무가 그 나무들 만큼 흔하지 않아 지역에 따라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른 봄의 추위를 이겨내고 고결하게 피어나는 매화의 지조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겨울에도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 동백나무가 소나무와 대나무에 더 어울리는 벗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이다. 실제로 세한삼우의 그림에 매화대신 동백나무를 그려 놓은 사람도 있다. 동백나무도 세한삼우 또는 세한사우(歲寒四友)에 걸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아마도 남은공(南隱公)은 세한사우를 좋아하셨던 모양이다.

동백꽃은 꽃피는 기간이 길어 이른 봄부터 4, 5월까지도 핀다. 꽃이 질 때면 매화나 벚꽃처럼 꽃잎이 하나하나 지는 것이 아니라 꽃송이째 툭툭 떨어진다. 보다 남성답다고 할까, 매화와 벚꽃의 낙화는 흩뿌리듯 휘날려 광바닥에 하얗게 깔리지만 동백꽃은 붉은 송이째 나뉠굴어 땅 위를 빨강게 물들인다. 못다 사른 정열을 땅 위에 떨어뜨려서까지도 마지막 신명을 바쳐 고스란히 불태운다. 동백꽃의 이러한 정열과 끈기를 절재공의 붉은 입념과 충절을 보듯, 남은공은 동백꽃을 그렇게 기리었던 것이다.

동백나무는 꽃도 좋고 동백(열매)도 유용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무 그 자체의 청청하고 싱그러운 생명력이 좋다. 동백나무는 무항산(無恒産)이여도 항심(恒心)의 선비 정신으로 복과 덕을 나누어 주는 나무이다.



http://hcc.hanwha.co.kr



같은 꿈을 꿉니다

당신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어도 둘이 아닌 쌍둥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벗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함께 이루는 한화석유화학이 되겠습니다.